1999年 勞動力 需給展望

1999. 2.

崔康植(韓國勞動研究院 動向分析室長)
田裁植(韓國勞動研究院 研究員)

目　次

要　約 ····· 1

Ⅰ. 1998年 勞動市場 評價 ····· 5

1. 경제사정 ····· 5

2. 고용사정 악화 ····· 7

3. 임금하락 ····· 12

Ⅱ. 1999年度 勞動市場 展望 ····· 14

1. 1999년도 고용 전망 ····· 14

2. 취업구조 전망 ····· 21

3. 실업구조 전망 ····· 26

Ⅲ. 勞動市場의 政策課題 ····· 33

表 目 次

<표 1> 산업별 생산지표 추이 ····· 5
<표 2> 전국 부도업체수 추이 ····· 6
<표 3> 대외거래 동향 ····· 7
<표 4> 이직이유별 전직실업자 추이 ····· 10
<표 5> 종사상지위별 전직실업자 추이 ····· 11
<표 6> 가구주 여부별 실업자 추이 ····· 11
<표 7>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비농전산업) ····· 12
<표 8> 내역별 임금동향 ····· 12
<표 9> 경제 전망 ····· 15
<표 10> 고용탄력성 추이 ····· 19
<표 11> 1999년도 고용 전망 ····· 20
<표 12> 분기별 실업 전망 ····· 21
<표 13>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 23
<표 1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및 전망 ····· 24
<표 15> 직업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 ····· 25
<표 16>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및 전망 ····· 26
<표 17> 연령별 실업자 전망 ····· 27
<표 18> 1999년도 졸업예정자의 경제활동상태 전망(2월 기준) ····· 28
<표 19> 성별·가구주 유무별 실업자 전망 ····· 29
<표 20> 학력별 실업자 전망 ····· 29
<표 21> 종사상지위별 전직실업자 전망 ····· 30

그림目次

[그림 1] 최근의 실업률 추이 ····· 8

[그림 2] 전년동기대비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1~10월 평균) ····· 9

[그림 3]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추세비교 ····· 16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17

[그림 5] 분기별 고용 전망 ····· 21

[그림 6] 장기실업자 비중 전망 ····· 31

〈要 約〉

〈경제 전망〉

○ 1999년에는 구조조정 및 확장적 거시정책의 결과 내수부문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률이 2% 내외의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제 전망〉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1998p	1999p
국내총생산	-5.9	2.2
총 소 비	-10.9	2.5
총고정투자	-26.2	-1.6
소비자물가	7.5	1.6
생산자물가	12.3	-2.6
상 품 수 지	421	305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4/4분기)』, 1998. 12.

〈고용 전망〉

○ 1999년에 경기가 소폭 회복(약 2%내외 성장)되어도 노동공급의 순증가분을 흡수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실업률은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제가 1999년에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가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고용사정이 회복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1999년도 연평균 실업자는 163만명, 실업률은 7.5%에 이를 전망임.

〈1999년도 고용 전망〉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p
경제성장률	5.5	-5.9p	2.2
15세이상인구	34,736(1.5)	35,243(1.5)	35,673(1.2)
경제활동인구	21,604(2.0)	21,390(-1.0)	21,713(1.5)
참 가 율	62.2	60.7	60.9
취 업 자	21,048(1.4)	19,926(-5.3)	20,080(0.8)
실 업 자	556	1,463	1,632
실 업 률	2.6	6.8	7.5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 자료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p는 전망치임.

○ 분기별로는 신규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1/4분기에 실업자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이후 실업자수는 하락하겠으나 정부의 실업대책 효과에 따라 1/4분기 실업자수의 크기와 이후의 하락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1999년 2/4분기부터는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분기별 고용 전망〉

(단위: 천명, %)

	1999p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 업 자	1,632	1,759	1,638	1,552	1,581
실 업 률	7.5	8.3	7.5	7.1	7.2

주: p는 전망치임.

〈취업구조 전망〉

○ 1999년도 취업자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20,080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취업구조는 각 산업별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일 것임.

- 농림어업의 경우 1999년도 들어서는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125천명이 감소한 2,29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의 경우 1999년도에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감소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3,89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실시되더라도 1999년도 건설업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39천명 증가한 1,616천명에 그칠 전망이어서 1998년도의 큰 감소를 만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2001년 이후에나 과거의 고용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화 중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집약적 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각 산업 내에서도 기술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한편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단순노무직에 대한 노동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도에도 단순노무직 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임.

〈실업구조 전망〉

○ 1999년도 실업구조는 정부의 실업대책의 효과와 노동수요, 그리고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이전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대다수 기업들의 신규채용 축소 내지 억제로 신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층의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고용사정까지도 악화시키는 하향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
- 실업기간에 있어서 장기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Ⅰ. 1998年 勞動市場 評價

1. 경제사정

1998년도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1980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산업별 생산에 있어서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이 감소하는 등 경제기반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그간 꾸준하게 생산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던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이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감소 추세도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도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소비와 투자 모두 급격하게 위축되

〈표 1〉 산업별 생산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7p	1998p		
		1/4	2/4	3/4
경제성장률	5.5	-3.9	-6.8	-6.8
산업별 생산	6.1	-2.8	-6.2	-6.0
농림어업	2.5	4.6	-0.9	-5.6
제조업	6.2	-6.4	-10.0	-7.9
건설업	2.8	-7.3	-12.1	-12.9
서비스업[1)]	6.5	-3.5	-5.7	-6.0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 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2)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998년 3/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1998. 11.

고, 이는 다시 경제기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1998년 3/4분기까지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1.5%의 감소를 보였으며, 투자는 27.2%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특히 투자 중 설비투자는 그 감소폭이 매우 커 3/4분기까지의 누계치가 전년동기대비 -46.6%를 기록하였다.

1997년 중반까지 700~800원대의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연말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12월에는 일시적으로 2,0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게되었다.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 등으로 급격한 경기위축이 따르게 되었고, 주식시장의 침체, 급격한 금리 상승,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기업의 자금압박이 심각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흑자도산하는 기업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부도업체수는 올 1/4분기에 정점을 이루었다. 이후 부도업체수는 감소하여 하반기 들어 예년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같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은 아직까지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3/4분기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3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여 사상 유례없는 흑자폭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수출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그간 성장의 근간이 수출 주도형이었음을 고려할 때 내용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1~9월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7%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반면 수입 급감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급격한 투자위축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이 또한 향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 2〉 전국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개소, %)

	1997			1998				
	7월	10월	12월	1월	3월	5월	7월	9월
부도업체수	1,384	1,435	3,197	3,323	2,749	2,070	1,799	1,085

자료: 한국은행.

〈표 3〉 대외거래 동향

(단위: 백만달러, 원, 엔, %)

	1997		1998				
	1~9월 누계	3/4분기	1~9월 누계	3/4분기	7월	8월	9월
상 품 수 지	-6,234.6	-27.1	31,459.0	10,454.4	3,807.0	2,816.0	3,831.6
수 출[1]	99,437.1 (5.5)	34,181.7 (15.6)	97,790.3 (-1.7)	35,687.7 (-10.2)	10,028.6 (-15.1)	9,779.5 (-11.4)	10,895.8 (-3.9)
수 입[1]	110,099.5 (0.2)	35,687.7 (-3.8)	69,012.4 (-37.3)	21,473.5 (-39.8)	7,100.1 (-43.8)	7,119.0 (38.1)	7,254.4 (-37.2)
대미원화환율	885.3	898.6	1,443.8	1,324.9	1,300.8	1,303.2	1,370.8

주: 1)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이며 통관금액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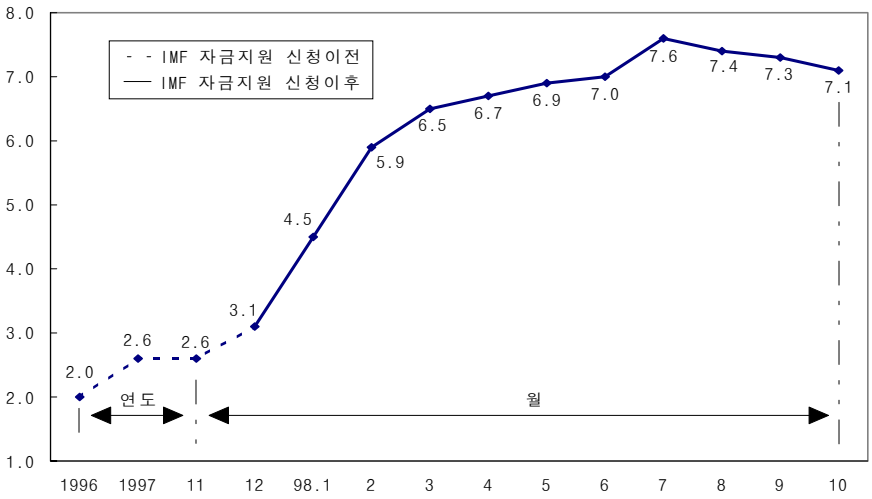
2. 고용사정 악화

가. 실업률 급상승후 주춤, 그러나 다시 상승조짐

이러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급속한 속도로 높아져 7월에 7.6%를 기록하여 월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 10월들어서는 7.1%로 낮아졌으나 신규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이후에는 다시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실업률 급상승 원인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올해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아울러 작년부터 이어진 대기업의 부도와 이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하여 그간 고용흡수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내수관련 산업에서의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가 심각하게 일어나 고용사정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의

〔그림 1〕 최근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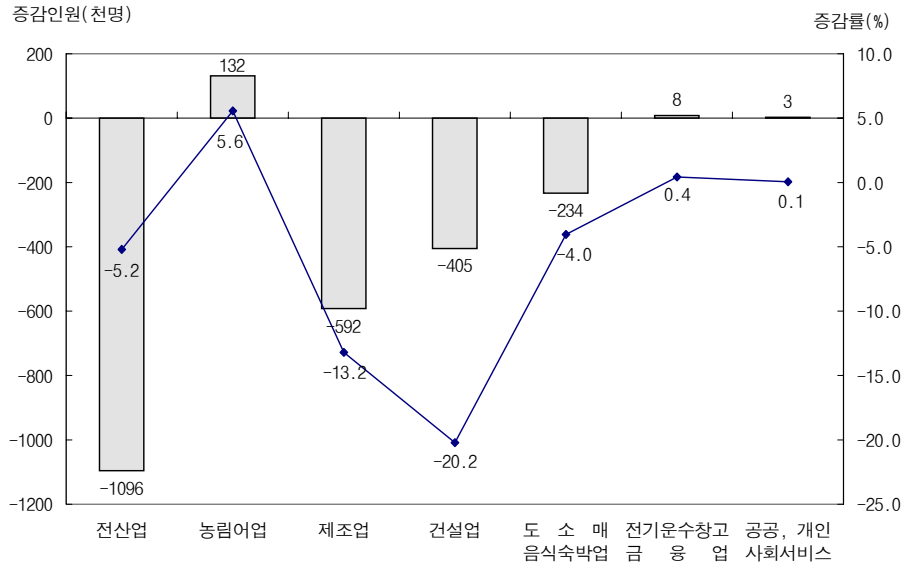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 명예퇴직과 기업퇴출에 의한 실직 등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나. 취업구조 악화

이처럼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 실업자수의 급증과 아울러 취업자수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여 10월까지 평균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10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1월에 취업자수는 19,71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이후 취업자수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4월 -5.1%, 8월에는 -6.8%의 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 변동추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감소인원 중에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592천명 감소하여 5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그간 경공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경공업 취업자를 꾸준하게 흡수하여 왔으나, 작년과 올해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가 잇따름에 따라 중화학

공업 부문의 고용사정도 극히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등 건설경기의 호조로 고용량이 증가하여 왔으나 올해 들어 극심한 내수 및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취업자 감소가 전체 취업자 감소인원 중 3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전년동기대비 산업별 취업자 증감추이(1~10월 평균)



다. 실업구조 변화

실업자 중 전직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분기에 93.7%로 지난 2/4분기의 92.7%에 비하여 높아졌다. 그러나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전 분기보다 줄어든 반면, 이직시기가 1년 이상인 전직실업자 비중은 높아져 장기실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실업자를 이직이유별[1]로 살펴보면,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업비중이 높

1) 1998년 들어 실업자의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시계열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변경된 분류체계에 의하면 노동시장 재진입자(reentrant)가 과거 신규실업자에서 전직실업자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직실업자의 경우에도 이직시기에 따라 1년 미만 전직실업자와 1년 이상 전직실업자로 분류하여 이직시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직의 상황을 질문하지 않는다. 따

〈표 4〉 이직이유별 전직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

	1998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909(100.0)	1,250(100.0)	1,347(100.0)
개인적 이유[1)]	201(22.1)	243(19.5)	293(21.8)
직장의 휴·폐업	158(17.4)	180(14.4)	175(13.0)
경영상 해고	152(16.7)	234(18.7)	237(17.6)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경영 악화	314(34.5)	508(40.6)	554(41.1)
기타[2)]	84(9.2)	84(6.7)	88(6.5)

주: 1) 개인적 이유항목에는 개인·가족적 이유, 정년퇴직·연로, 작업여건 불만족 등이 속함.
2) 기타 항목에는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가 속함.
3) ( )안의 수치는 1년 미만 전직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로 인한 전직실업자 비중이 1998년도 들어서 30~40%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직장의 휴·폐업에 의한 실업자는 올초에 부도업체수가 급등함과 동시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부도업체수가 점차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의 고통은 저학력층과 무기능 계층에게 먼저 닥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기능 계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등 주로 비정규직 계층의 실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 전직실업자를 보면 전직이 일용근로자였던 실업자의 비중이 1/4분기의 25.5%에서 3/4분기에는 30.1%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용근로자였던 전직실업자의 경우는 기업의 고용조정 영향으로 실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계층보다는 다소 느린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 실업 비중이 1997년 34.5%에서 올해 들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가구주 실업은 가정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계층

라서 실업구조의 분석은 이직시기가 1년 미만 전직실업자에 한하여 가능하였다.

의 실업에 비해 보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성 가구주의 실업 비중이 1997년의 27.4%에서 1998년에는 40% 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가구주 실업이 전체 실업자 중 5~6%대를 차지하여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계층의 실업은 곧바로 생계의 위협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업의 고통은 어느 계층보다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어서 정책의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종사상지위별 전직실업자 추이(이직시기가 1년 미만 전직실업자)

(단위: 천명, %)

	1998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909(100.0)	1,250(100.0)	1,347(100.0)
상용근로자	209(23.0)	286(22.9)	289(21.5)
임시근로자	332(36.5)	418(33.4)	435(32.3)
일용근로자	231(25.5)	342(27.4)	406(30.1)
자영업주	126(13.9)	185(14.8)	200(14.9)
무급가족종사자	11(1.2)	19(1.5)	17(1.2)

주: ( )안의 수치는 1년 미만 전직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표 6〉 가구주 여부별 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 체	556(100.0)	1,182(100.0)	1,485(100.0)	1,600(100.0)
가 구 주	192(34.5)	515(43.6)	693(46.7)	743(46.4)
남 자	153(27.4)	447(37.8)	607(40.9)	644(40.3)
여 자	39(7.1)	68(5.8)	85(5.7)	99(6.2)
비가구주	365(65.5)	667(56.4)	792(53.3)	858(53.6)
남 자	200(35.9)	345(29.2)	399(26.9)	444(27.7)
여 자	165(29.7)	322(27.3)	392(26.4)	414(25.9)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3. 임금하락

고용사정의 악화와 아울러 임금수준도 크게 하락하였다. 1998년 1~9월 동안 비농전산업의 1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은 임금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3.2%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질임금 또한 감소폭이 점차 커져 근로자의 소득수준 하락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7〉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비농전산업)

(단위: 천원/월, %)

	1997			1998		
	연평균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명목임금총액	1,463	1,543	1,480	1,431	1,385	1,417
증 감 률	7.0	6.8	0.9	0.1	-1.2	-8.1
소비자물가	4.5	4.0	3.2	8.9	8.2	7.0
실질임금증감률	2.4	2.7	-4.0	-8.1	-8.6	-14.2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특히 임금내역별로 살펴볼 때, 특별급여의 하락폭이 1/4분기의 12.3%에서 3/4분기에는 33.8%로 매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급여 항목에는 정기 및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서 임금조정을 주로 정액급여보다는

〈표 8〉 내역별 임금동향

(단위: 천원/월, %)

	1997			1998		
	연평균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임금총액	1,643(7.0)	1,543(6.8)	1,480(0.9)	1,431(0.1)	1,385(-1.2)	1,417(-8.1)
정액급여	1,012(9.4)	1,015(8.2)	1,045(7.2)	1,053(5.8)	1,043(4.9)	1,047(3.2)
초과급여	118(1.4)	119(0.9)	118(-3.1)	97(-14.5)	100(-18.2)	100(-16.5)
특별급여	333(2.1)	408(5.2)	317(-14.6)	281(-12.3)	242(-15.1)	270(-33.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특별급여 중심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초과근로를 대폭 줄여 이에 따른 초과급여의 하락폭도 3/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16.5%를 기록하였다.

Ⅱ. 1999年度 勞動市場 展望

1. 1999년도 고용 전망

가. 경제 전망

올해 들어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IMF 자금지원 신청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던 우리 경제는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침체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회복세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회복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1999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국내 각종 거시지표의 안정세와 정부의 경기부양 등으로 실물부문의 점진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어 구조조정 및 확장적 거시정책의 결과 내수부문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률이 2% 내외의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① 우리나라의 경우 남미국가와 비교하여 아직 재정적자 규모가 작으므로 재정지출에 의거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② 외환수급사정의 개선으로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정책이 가능하며, ③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엔화절상의 결과 수출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는 동시에 수입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 또한 개선될 전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전례 없는 침체를 겪었던 내수가 1999년에는 점차 회복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다소나마 호전될 전망이다. 총소비는 올해 10.9% 감소에서 내년에는 2.5% 증가로 돌아설 것이고, 총고정투자는 올해 26.2%의 큰 폭의 감소에서 내년에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 1.6%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대외거래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수출의 증가보다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던 우리 경제는 1999년에도 경기회복

과 더불어 수입 수요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품수지 흑자폭이 3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9〉 경제 전망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1998p	1999p
국 내 총 생 산	-5.9	2.2
총 소 비	-10.9	2.5
총 고 정 투 자	-26.2	-1.6
소 비 자 물 가	7.5	1.6
생 산 자 물 가	12.3	-2.6
상 품 수 지[1)]	421	305

주: 1) 1998년 1월부터 IMF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계획에 의거하여 국제수지 통계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음. 이 중 무역수지는 수출입 상품을 상품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상품수지로 변경되었음.
2) p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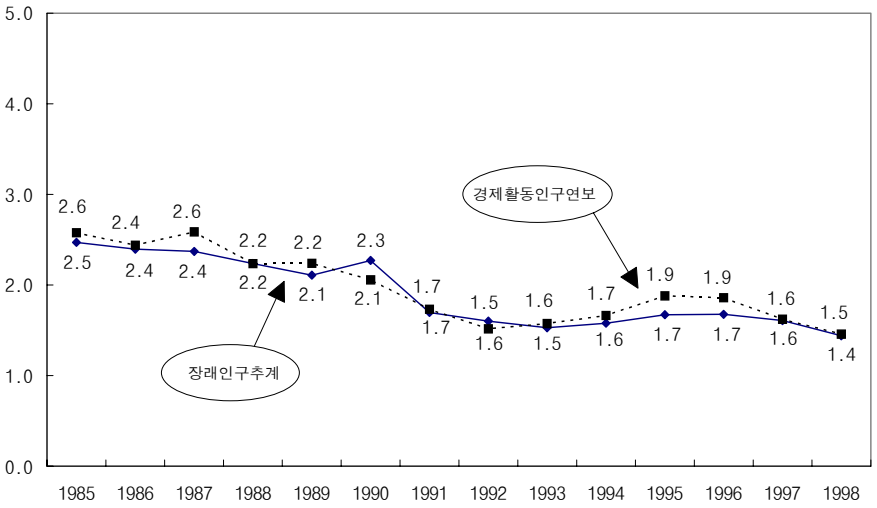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4/4분기)』, 1998. 12.

나. 고용 전망

1) 노동공급 전망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인구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의 15세 이상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인구연보』상의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을 시계열로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율이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전망은 장래인구추계 자료의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오차범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래인구 추계상에서 1999년도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인 1.2%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로 사용한다. 이 경우 1999년도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보다 약 430천명이 증가한 35,67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전망결과는 <부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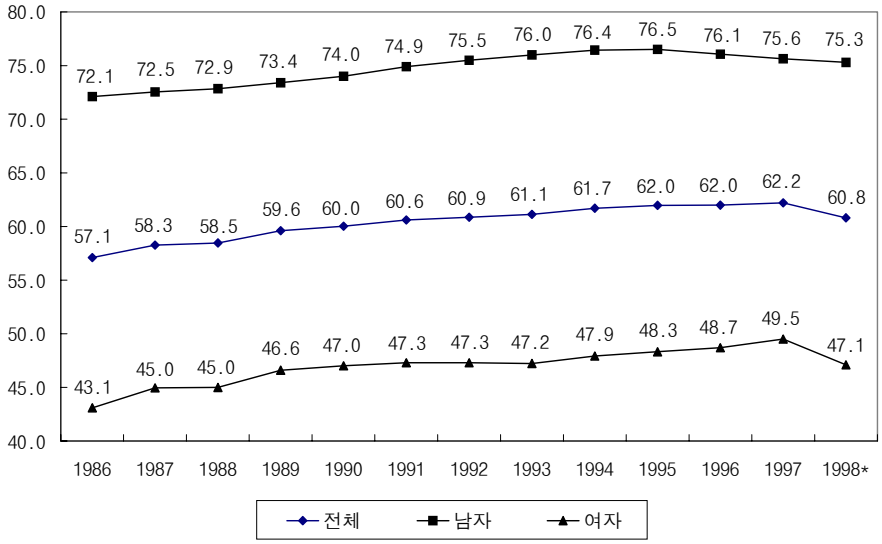
〔그림 3〕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추세비교



1998년도의 노동공급의 특징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같은 참가율의 감소는 주로 여성의 참가율 감소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1997년의 75.6%에서 1998년에는 75.2%로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은 49.5%에서 47.0%로 2.5%포인트 가량 크게 하락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그간 고학력화로 인한 사회진출 유인의 확대, 가사부담의 감소 등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으나, 1998년 들어 경제가 극심한 침체일로에 접어들고, 특히 내수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자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급격하게 퇴출하는 소위 '실망노동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9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1998년도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생산가능인구의 순증가분만이 경제활동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999년도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의 60.7%보다 0.2%포인트 높아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먼저 각 계층별 구분은 성별·연령계층별로 구분하며, 연령계층의 구분은 동일하게 5세 연령계층별로 구분한다. 미국의 BLS에서는 연령계층을 16계층으로 나누어 10대 및 20대 전반과 은퇴기에 있는 60대 연령계층의 세분화하고 기타 연령층은 5세 계급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5세 연령계층별로 구분한 결과와 BLS 방식대로 분석한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연금제도 등이 미국의 경우와는 상이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연령계층별로 세분화한 집단에 대하여 각각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구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여 전체 참가율 전망치를 구한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적 변수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특

정계층의 실업률 등이 사용되는데, 본 전망에서는 여자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변수로 판단되어 이 변수를 사용하였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연령계층별로 일부 청소년층에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 참가율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변화만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각 성별·연령계층별 추정결과는 <부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99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75.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경우는 참가율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전년도의 47.0% 수준에서 다소 높아진 4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노동력 수요 전망

총취업자수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그리고 인구증가 등의 외생변수에 대한 전망치를 이용하고 고용규모와 실질임금상승률을 내생변수로 하여 예측하는 노동시장 총량변수 예측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예측모형에 의하여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지표인 취업계수나 고용탄력성(=취업자 증가율/경제성장률)의 전망치가 얻어지며, 이것과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에 의하여 고용규모가 예측되게 된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고용탄력성의 과거추세를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도에는 임금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할 것이고,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실업 상태에서는 자연실업률과의 차이가 매우 크며 향후 고용형태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고용탄력성은 0.36을 기록하여 과거의 추세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9년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20,080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1994	1995	1996	1997
경제성장률	8.78	8.73	7.13	5.46
취업자증가율	3.03	2.72	1.90	1.37
고용탄력성	0.35	0.31	0.27	0.25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실업자수 및 실업률 전망이 얻어진다. 이에 따르면 1999년도 실업자수는 1,632천명, 실업률은 7.5%에 이르러 급격하게 실업률 증가를 보였던 1998년보다도 오히려 실업률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총량지표

앞의 전망을 종합하여 볼 때, 1999년 역시 실업률은 1998년의 상황보다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1999년에 경기가 소폭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이 2% 정도를 기록하더라도 노동공급의 순증가분을 흡수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실업률은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9년도 연평균 실업자는 163만명, 실업률은 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조정을 단행한 기업이 내년에 생산량이 소폭 늘어난다고 해서 채용을 크게 늘릴 가능성을 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일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9년도의 취업자는 전년보다 약 154천명 늘어난 20,080천명으로 증가율은 전년대비 0.8%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율은 과거의 증가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내년도의 정책과제로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가 1999년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가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고용사정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서 전년수준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8년의 경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망실업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줄어들었

〈표 11〉 1999년도 고용 전망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p
경제성장률	5.5	-5.9p	2.2
15세이상인구	34,736(1.5)	35,243(1.5)	35,673(1.2)
경제활동인구	21,604(2.0)	21,390(-1.0)	21,713(1.5)
참 가 율	62.2	60.7	60.9
취 업 자	21,048(1.4)	19,926(-5.3)	20,080(0.8)
실 업 자	556	1,463	1,632
실 업 률	2.6	6.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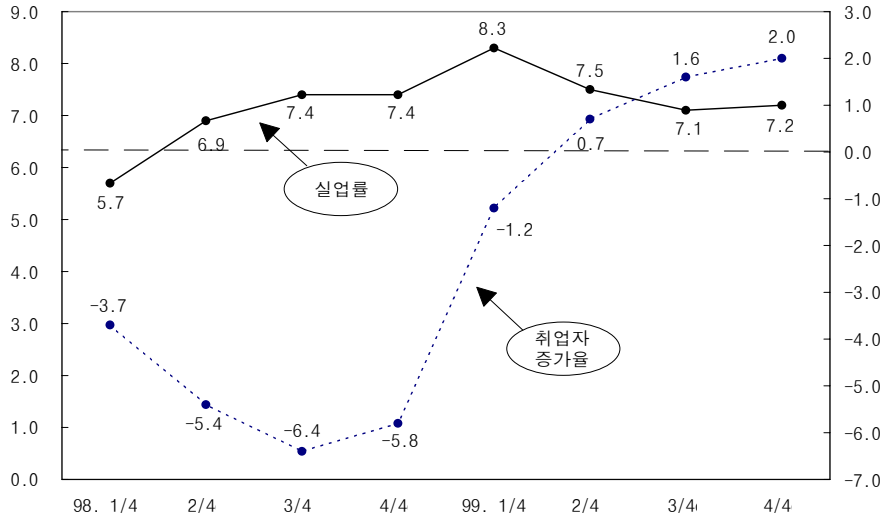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 자료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p는 전망치임.

으며 이러한 상황은 1999년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323천명이 증가한 21,713천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분기별 고용 전망

분기별로는 신규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1/4분기에 실업률은 8.3%를 기록하여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실업률은 하락하겠으나 정부의 실업대책 효과에 따라 1/4분기 실업자수의 크기와 이후의 하락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99년 2/4분기부터는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0.7%를 기록하여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여 노동시장 상황이 점차 회복기미를 보일 것이다.

〔그림 5〕 분기별 고용 전망



〈표 12〉 분기별 실업 전망

(단위: 천명, %)

	1999p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 업 자	1,632	1,759	1,638	1,552	1,581
실 업 률	7.5	8.3	7.5	7.1	7.2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 자료임.
2) p는 전망치임.

2. 취업구조 전망

가. 산업별 취업자 전망

산업별 고용구조 전망은 각 산업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과 취업자수와 생산의 비율인 취업계수의 추이 및 전망을 고려한 후 생산함수에 대한 추정을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나 각 부문별 국내총생산은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생산량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취업구

조를 전망하였다.

전망결과에 의하면 농림어업의 경우 과거에는 농림어업 인구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흡수와 농어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8년에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타산업 부문의 취업자 중 상당수가 농림어업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오히려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4.3%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이동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겠으며 1999년도 들어서는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과거 추세로 빠르게 회귀할 것으로 보여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125천명이 감소한 2,29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현상이 예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주로 임시·일용직 등 주로 미숙련계층을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일어난 데 반하여 최근에는 그 감소폭이 상용직으로 크게 확대된 데 있다. 이는 1998년 들어 극심한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부도기업의 급증 등 경영환경 악화 때문이며, 고용규모 축소의 범위가 경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중공업 부문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이러한 경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감소는 크게 둔화되고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3,89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경우 금년에 가장 크게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던 산업중의 하나로서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생산활동의 직접적인 선행지표가 되는 수주실적이 1998년도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예년과는 달리 연말 공사발주 물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건설투자는 1998년도의 14.1% 감소에서 1999년도에도 7.3%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실시되더라도 1999년도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39천명 증가한 1,616천명에 그칠 전망이어서 1998년도의 큰 감소를 만회하지는 못하겠으며, 2001년 이후에나 과거의 고용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통적으로 내수산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소비에 의하여 그 수요가 결정되는 산업이다.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내수산업의 고용규모가 꾸준하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도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주로 내수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4.0% 감소하였다. 이러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고용사정 악화는 1999년도에는 다소 회복될 전망으로 취업자수는 과거의 증가추세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전년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가 1998년도의 10.9% 감소에서 1999년에는 2.5% 성장할 전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단위: 천명, %)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	전기운수창고통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995	20,377 (2.7)	2,541 (-5.8)	27 (-33.2)	4,773 (1.7)	1,869 (6.7)	5,358 (3.1)	1,787 (5.8)	3,995 (6.9)
1996	20,764 (1.9)	2,405 (-5.3)	24 (-10.0)	4,677 (-2.0)	1,967 (3.8)	5,628 (5.0)	1,853 (3.7)	4,209 (5.3)
1997	21,048 (1.4)	2,324 (-3.4)	27 (12.2)	4,474 (-4.3)	2,004 (1.8)	5,798 (3.0)	1,926 (3.9)	4,495 (6.8)
1998	19,926 (-5.3)	2,424 (4.3)	20 (-25.6)	3,884 (-13.2)	1,577 (-21.3)	5,565 (-4.0)	1,928 (0.1)	4,529 (0.7)
1999p	20,080 (0.6)	2,299 (-5.2)	20 (0.4)	3,896 (0.3)	1,616 (2.5)	5,632 (1.2)	1,948 (1.0)	4,669 (3.1)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2) p는 전망치임.

한편 산업별로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산업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1999년도에도 취업자가 감소함에 따라 비중이 19.4%로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1998년도의 비중보다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농림어업의 경우 1998년도의 취업자 증가로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는 1999년도에는 과거의 추세로 빠르게 회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경우는 소비의 회복,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등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표 1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및 전망

(단위: %)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 음식숙박	전기운수 창고통신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1995	100.0	12.5	0.1	23.4	9.3	26.3	8.8	19.6
1996	100.0	11.6	0.1	22.5	9.5	27.1	8.9	20.3
1997	100.0	11.0	0.1	21.3	9.5	27.5	9.1	21.4
1998	100.0	12.2	0.1	19.5	7.9	27.9	9.7	22.7
1999p	100.0	11.4	0.1	19.4	8.0	28.1	9.7	23.3

주: p는 전망치임.

나. 직업별 취업자 전망

직업별 취업자수의 전망은 앞 절에서 얻어진 산업별 취업자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각 산업별로 직업별 구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각 산업별 직업구성을 나타내는 산업·직업행렬 전망을 실시하여 얻어진다.

직업별 고용구조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집약적 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각 산업 내에서도 기술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도에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타직종에서의 취업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및 기술공, 준전문가 직업에서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도에도 취업자수 증가율이 4.5%를 기록하여 여전히 다른 직업에서의 취업자수 증가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직의 경우 1998년도 들어 금융권의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이같은 취업자 감소는 199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에서는 꾸준하게 고용조정을 실시하려 할 것이고 특히 무기능계층 사무직들의 일자리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2,410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극심한 침체로 인하여 이 산업에서

의 취업자 구성비가 높은 단순노무직의 취업자는 1998년도에 전년대비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단순노무직에 대한 노동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1999년도 단순노무직 취업자는 전년대비 0.8%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5〉 직업별 취업구조 추이 및 전망

(단위: 천명, %)

	전직종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직
1995	20,377 (2.7)	526 (-1.3)	2,811 (10.6)	2,510 (3.2)	4,464 (4.1)	2,389 (-6.2)	5,394 (2.3)	2,284 (2.7)
1996	20,764 (1.9)	550 (4.6)	2,989 (6.4)	2,564 (2.1)	4,672 (4.6)	2,295 (-3.9)	5,398 (0.1)	2,295 (0.5)
1997	21,048 (1.4)	531 (-3.3)	3,181 (6.4)	2,574 (0.4)	4,857 (4.0)	2,213 (-3.6)	5,336 (-1.2)	2,355 (2.6)
1998	19,926 (-5.3)	516 (-3.0)	3,247 (2.1)	2,418 (-6.1)	4,722 (-2.8)	2,319 (4.8)	4,621 (-13.4)	2,085 (-11.5)
1999p	20,080 (0.8)	522 (1.2)	3,394 (4.5)	2,410 (-0.3)	4,819 (2.1)	2,249 (-3.0)	4,618 (-0.1)	2,068 (-0.8)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2) p는 전망치임.

한편 직업별로 취업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기술직의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단순노무직 등 비숙련직에 대한 노동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전문가 및 기술공·준전문가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16.3%에서 1999년에는 16.9%로 높아지겠고, 반대로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1997년 이전의 11%대에서 1998년도에는 10.5% 감소하였으며, 1999년도에도 10.3%를 기록하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및 전망

(단위: %)

	전직종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직
1995	100.0	2.6	13.8	12.3	21.9	11.7	26.5	11.2
1996	100.0	2.6	14.4	12.3	22.5	11.1	26.0	11.1
1997	100.0	2.5	15.1	12.2	23.1	10.5	25.4	11.2
1998	100.0	2.6	16.3	12.1	23.7	11.6	23.2	10.5
1999p	100.0	2.6	16.9	12.0	24.0	11.2	23.0	10.3

주: p는 전망치임.

3. 실업구조 전망

1999년도 실업구조는 정부의 실업대책의 효과와 노동수요, 그리고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이전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대다수 기업들의 신규채용 축소 내지 억제로 신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층의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고용사정까지도 악화시키는 하향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기간에 있어서 장기실업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가. 연령계층별 실업구조 전망

청소년층 실업의 주요 특징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도에 발생할 청소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채용 축소, 파트타임 기회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층 실업 전망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가 1999년도에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계층인 15~29세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실업비중은 1998년보다 다소 높아져 4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년층 실업의 경우도 기업의 고용조정 범위가 점차 상용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고학력계층의 실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업자수가 199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업증가 속도가 청소년층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표 17〉 연령별 실업자 전망

(단위: 천명, %)

	1998	1999p
전 체	1,463(100.0)	1,632(100.0)
15 ~ 19세	85(5.8)	101(6.2)
20 ~ 24세	257(17.6)	294(18.0)
25 ~ 29세	268(18.3)	302(18.5)
30 ~ 39세	360(24.6)	401(24.6)
40 ~ 54세	379(25.9)	416(25.5)
55세 이상	113(7.7)	118(7.2)

주: 1)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2) p는 전망치임.

한편 1999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게 됨에 따라 1999년 2월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신규 학졸예정자들의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고졸 이상 전체 졸업예정자들은 1,301천명에 이를 것이다. 이 중 49%에 해당되는 638천명이 취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데, 381천명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 257천명이 미취업상태에서 실업으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자 중 상당수가 진학할 예정으로 나타났으며 28.3%만이 취업을 위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특히 이 중 59천명만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 약 306천명 중 242천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자 중 54.1%에 해당되는 131천명이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머물 것이다.

〈표 18〉 1999년도 졸업예정자의 경제활동상태 전망(2월 기준)[1)]

(단위: 천명)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졸 업 예 정 자	771	224	306[2)]
경제활동참가자	218	178	242
취 업 자	159	111	111
실 업 자	59	67	131

주: 1) 교육부,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추정한 것임.
2) 대졸 이상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포함됨.

나. 성별·가구주별 실업구조 전망

실업자 중 그 가구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 실업자는 46.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경우 가구주 실업자가 비가구주 실업자보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남자의 경우는 가구주 실업자 비중이 40.2%로 비가구주 실업자 비중 27.7%보다 높게 나타나겠으며, 반면 여성의 경우는 비가구주 실업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가구주 실업의 경우는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다른 계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은 취업상태에서 실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비경활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표 19〉 성별·가구주 유무별 실업자 전망

(단위: 천명, %)

		1998	1999p
전 체		1,463(100.0)	1,632(100.0)
남 자		986(67.4)	1,108(67.9)
	가 구 주	580(39.6)	656(40.2)
	비가구주	406(27.8)	452(27.7)
여 자		477(32.6)	524(32.1)
	가 구 주	88(6.0)	101(6.2)
	비가구주	389(26.6)	423(25.9)

주: 1)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수에 대한 비중임.
2) p는 전망치임.

다. 학력별 실업구조 전망

기업의 고용조정과 신규 채용의 억제가 1999년도에도 지속됨으로써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계층의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실업자에서 대졸 이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의 비중보다 높아져 2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같은 고학력계층의 취업난은 과거와는 달리 하향취업의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저학력 무기능계층의 고용사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경기가 다소 호전되더라도 고졸 이하 무기능계층의 실업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실업자에서 고졸 이하 학력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표 20〉 학력별 실업자 전망

(단위: 천명, %)

	1998	1999p
전 체	1,463(100.0)	1,632(100.0)
중졸이하	410(28.0)	452(27.7)
고 졸	767(52.4)	849(52.0)
대졸 이상	286(19.6)	331(20.3)

주: 1)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수에 대한 비중임.
2) p는 전망치임.

라. 전직실업구조 전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1999년도에도 지속되면서 직장을 잃는 실업자가 1,447천명을 기록하여 1998년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아울러 장기실업자의 증가로 전직실업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999년 중 전체 전직실업자에서 상용 및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 그리고 일용직은 2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에는 고용조정이 용이한 일용근로자의 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기업의 고용형태가 상용직 등 정규직 중심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의 고용창출정책이 우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일용직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비해서 1.8%포인트 가량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종사상지위별 전직실업자 전망

(단위: 천명, %)

	1998	1999p
전 체[1]	1,348(100.0)	1,447(100.0)
비임금근로자[2]	217(16.1)	236(16.3)
상용근로자	291(21.6)	331(22.9)
임시근로자	449(33.3)	486(33.6)
일용근로자	390(29.0)	394(27.2)

주: 1) 전직실업자를 이직시기에 따라 1년 미만과 1년 이상 전직실업자로 분류하며, 이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전직실업자에 대해서만 실업구조를 파악함. 따라서 이직시기가 1년 이상인 전직실업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서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비중을 대입하여 1년 이상 전직실업자의 구조를 파악함.
2) 비임금근로자 항목에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이에 속함.
3) ( )안의 수치는 전직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4) p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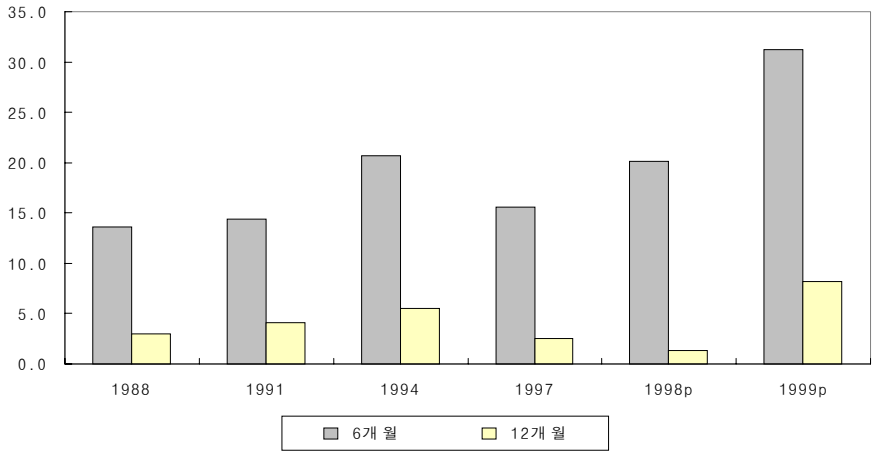
마. 실업기간 전망[2]

정확한 실업기간의 추정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완성된 실업기간(completed

unemployment spell)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경제활동인구 조사상의 미완성된 구직활동기간(incompleted unemployment spell)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는 평균 실업기간들은 실제의 실업기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상의 구직기간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의 구직활동기간(on-the-job search)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는 실제의 실업기간을 과대평가하게 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리라고 본다. 과거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인해 1997년까지 전체 실업자 중에서 6개월과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실업한 자의 비중은 각각 13~20%와 2~5%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장기실업자수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비율은 1998년에도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장기실업자수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들어 새로이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실업기간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6〕 장기실업자 비중 전망

(단위: %)



주: p는 전망치임.

2) 신동균, 『실업구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에서 인용하였다.

한편 장기실업의 누적효과가 나타나는 1999년도에는 장기실업자 비중이 6개월과 12개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가하여 각각 27.4%,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勞動市場의 政策課題

향후 노동시장의 인력정책 방향은 우선 대폭 늘어난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존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대책의 골격은 이미 1998년 실업대책에서 상당부분 골격이 갖추어져 있으나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고용보험의 대상과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고실업 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전 차원의 대책 이외에도 현재 각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실업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실업대책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그동안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저해하는 법이나 관행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단위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체계의 유연화, 퇴직금제도의 개선, 연월차 휴가 및 인사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 계약직, 시간제근로, 재택근로 등의 확산을 억제하는 법·제도적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셋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등 노동공급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고, 경직적인 공공부문의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기 위해 정년감축, 계약직 고용제 도입 등의 노력이 긴요하다. 넷째,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인적자원의 양성·개발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훈련 체제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훈련바우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과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고용촉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뿐만 아니라 고실업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부표 1〉 성별·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p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19세	11.64	11.23	11.07	11.26	11.33	10.96	10.63
20~24세	10.98	10.88	10.37	10.00	9.54	8.47	8.16
25~29세	12.27	12.28	12.14	11.99	11.99	11.81	11.60
30~34세	13.24	12.80	12.48	11.78	11.17	11.21	11.18
35~39세	11.34	11.76	11.88	11.86	11.61	12.44	12.25
40~44세	8.27	8.23	8.87	9.42	9.81	10.43	10.82
45~49세	7.21	7.42	7.51	7.62	7.68	7.75	7.99
50~54세	6.78	6.57	6.56	6.48	6.52	6.44	6.58
55~59세	5.84	5.96	5.87	5.96	6.18	6.13	6.05
60세이상	12.43	12.87	13.25	13.64	14.16	14.37	14.75
남 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19세	12.28	11.87	11.57	11.72	11.83	11.53	11.07
20~24세	9.22	8.94	8.67	8.52	8.11	7.08	6.89
25~29세	12.88	13.03	12.76	12.64	12.61	12.15	12.16
30~34세	14.04	13.59	13.28	12.44	11.91	11.67	11.43
35~39세	12.11	12.56	12.62	12.58	12.24	13.23	13.73
40~44세	8.80	8.71	9.41	9.91	10.20	10.86	10.95
45~49세	7.64	7.91	7.96	8.06	8.06	8.23	8.44
50~54세	6.93	6.77	6.87	6.73	6.87	6.66	6.48
55~59세	5.90	6.04	5.89	5.93	6.17	6.24	6.48
60세이상	10.20	10.58	10.98	11.47	11.99	12.35	12.38
여 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19세	11.04	10.64	10.60	10.82	10.86	10.42	9.94
20~24세	12.62	12.69	11.98	11.40	10.88	9.79	9.58
25~29세	11.70	11.59	11.56	11.38	11.40	11.47	11.46
30~34세	12.50	12.05	11.72	11.16	10.47	10.77	10.60
35~39세	10.62	11.01	11.18	11.18	11.02	11.69	12.20
40~44세	7.77	7.77	8.37	8.96	9.44	10.02	10.06
45~49세	6.81	6.95	7.09	7.20	7.32	7.29	7.48
50~54세	6.64	6.38	6.27	6.24	6.20	6.24	6.00
55~59세	5.78	5.89	5.85	5.98	6.18	6.02	6.14
60세이상	14.52	15.02	15.38	15.68	16.21	16.28	16.54

주: p는 전망치임.

〈부표 2〉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p
전 체	61.1	61.7	62.0	62.0	62.2	60.7	60.9
15~19세	13.5	12.9	11.9	11.1	10.8	10.6	9.5
20~24세	61.3	62.1	62.8	62.8	62.5	58.3	59.6
25~29세	67.9	68.5	69.1	70.2	71.5	69.4	71.6
30~34세	72.9	73.5	73.1	73.7	74.6	72.1	71.0
35~39세	78.7	78.7	78.6	79.0	79.2	78.0	82.4
40~44세	80.1	80.9	81.7	81.5	81.7	79.5	77.8
45~49세	78.2	78.6	78.6	79.2	78.7	78.3	77.5
50~54세	74.3	75.1	75.1	74.6	74.9	73.6	68.5
55~59세	68.7	68.9	68.7	68.1	68.9	66.1	68.7
60세이상	36.8	38.2	39.1	39.6	40.3	38.0	37.8
남 자	76.0	76.4	76.5	76.1	75.6	75.2	75.3
15~19세	10.5	10.4	9.3	8.7	8.6	9.2	8.5
20~24세	56.5	58.3	58.0	58.2	56.9	54.3	55.3
25~29세	90.7	90.2	89.6	88.5	88.1	86.9	86.0
30~34세	97.2	97.2	97.1	97.1	96.8	96.4	96.4
35~39세	97.1	96.6	96.9	96.8	97.0	96.2	96.2
40~44세	96.5	96.5	96.6	96.8	96.2	95.3	95.5
45~49세	94.8	95.1	95.3	95.3	94.7	94.0	94.5
50~54세	91.4	91.5	91.4	91.7	91.2	92.0	91.2
55~59세	84.8	84.5	83.9	83.7	84.9	81.9	81.5
60세이상	52.3	53.8	54.2	54.5	54.7	52.1	52.0
여 자	47.2	47.9	48.3	48.7	49.5	47.0	47.3
15~19세	16.7	15.6	14.5	13.5	13.1	12.1	10.7
20~24세	64.6	64.7	66.1	66.1	66.4	61.0	61.1
25~29세	44.5	45.6	47.8	51.1	54.1	51.8	54.6
30~34세	47.4	48.6	47.5	49.1	50.9	47.2	47.2
35~39세	59.3	59.6	59.2	60.1	60.5	58.4	58.6
40~44세	62.8	64.2	66.0	65.6	67.0	63.3	64.6
45~49세	60.8	61.1	61.1	62.1	62.2	61.5	60.5
50~54세	57.6	58.8	58.4	57.3	58.0	55.0	53.1
55~59세	53.5	54.0	54.3	53.4	53.9	50.6	50.4
60세이상	26.7	27.9	28.9	29.2	30.1	28.0	28.7

주: p는 전망치임.

1999年 勞動力 需給展望

1999년 2월 23일 인쇄
1999년 2월 27일 발행

발 행 인 朴 烜 求

발 행 처

주 소 150-010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2 中小企業會館 9層
(代) (02) 782-0141

조판·인쇄 거 목 기 획
(代) 706-7077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3,000원